

제1 교시

언어영역

성명

수험번호

2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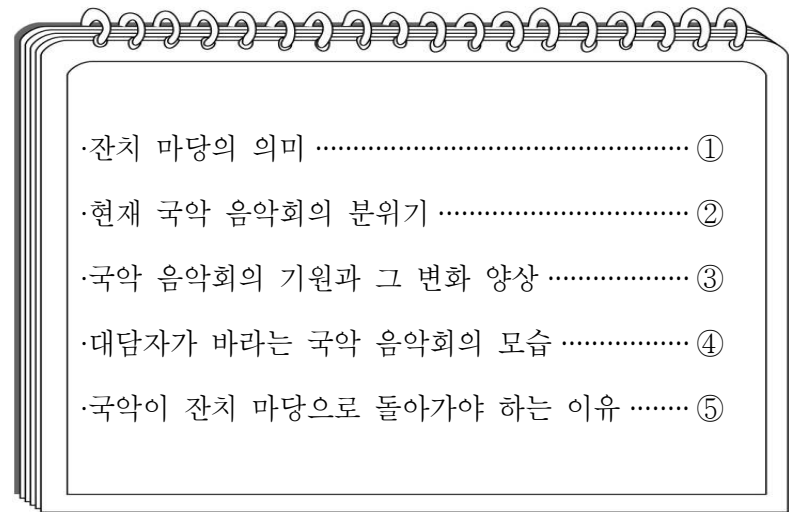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급훈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상은 높게! 노력은 확실하게!
 - ② 내 삶을 책임지는 우리가 되자!
 - ③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
 - ④ 자신 있게 표현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자!
 - ⑤ 시작이 반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자!

2. (물음) 강연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지방은 단백질, 탄수화물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
 - ② 뇌에서 쓰이는 포도당은 몸 전체에서 쓰이는 양의 1/4 정도이다.
 - ③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몸이 단맛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본다.
 - ④ 여성의 미각이 더 발달한 이유는 체내에 저장된 지방이 많기 때문이다.
 - ⑤ 쓴맛을 거부하는 것은 독성을 피하기 위한 인간의 방어 전략 중 하나이다.

3. (물음) 방송에서 소개한 인물에 대해 청취자가 평가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성공의 원동력이었군.
 - ② 자연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냈군.
 - ③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군.
 - ④ 리더십을 발휘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군.
 - ⑤ 개인의 의지보다는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더 중요하겠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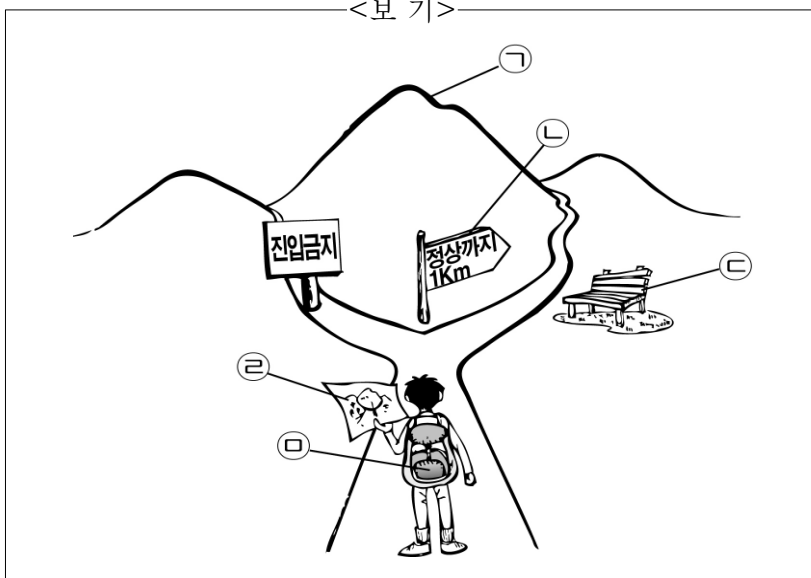
4. (물음) 다음은 대담 전, 진행자가 작성한 메모이다. 실제 대담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5. (물음)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담자의 말을 정리하며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 ②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더 심화된 설명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③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대담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개인적인 일화를 소개하여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대담자가 제시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반박하여 말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학습’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㉔ : 학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학습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② ㉒ : 어렵거나 쉬운 학습 내용을 적절히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③ ㉓ :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때로 휴식도 필요하다.
 ④ ㉑ :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안내자나 지침서가 필요하다.
 ⑤ ㉑ : 학습에 필요한 도구나 자료들을 잘 챙겨야 한다.

7. 다음은 ‘교통사고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쓸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인터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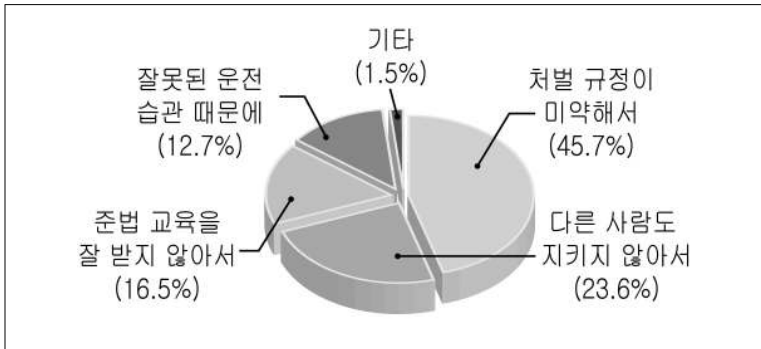
“보행 신호가 너무 짧아서, 불이 켜지자마자 빨리 뛰게 돼요.”

(18세, 고교생)

“내리막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다 추돌 사고가 날 뻔했어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5세, 운전자)

(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유



(다) 도로 교통사고의 원인 (단위 %)

구분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	교통신호체계 잘못 및 교통안전시설 미비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 의식 부족
운전자	19.9	25.5	54.6
보행자	20.5	25.8	53.7

- ① (가) : 교통 상황을 감안하여 현실성이 있는 교통 체계로 개선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② (나) : 교통 법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처벌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③ (가)+(다) :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④ (나)+(다) :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교통 질서 의식에 대한 계도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⑤ (가)+(나)+(다)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8. <보기>는 ‘청소년 과소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목 : 청소년 문화의 현주소 ——— ㉑

I. 실태 : 청소년들의 과소비 성향

II. 원인

1. 기업의 측면

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하는 과장 광고

나. 신상품으로 자주 교체하는 판매 전략

2. 청소년의 측면

가. 유행을 따르는 소비

나. 신상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

다. 일류만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 ㉒

III. 대책

1. 과장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2.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㉓

3. 다양한 디자인의 청소년용 제품 개발——— ㉔

4. 국산품 애용에 대한 홍보——— ㉕

- ① ㉑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청소년 소비 문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고친다.
 ② ㉒은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II-1’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③ ㉓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건전한 소비 문화 조성’으로 바꾼다.
 ④ ㉔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삭제한다.
 ⑤ ㉕은 논리적 흐름에 따라 ‘자기과시형 소비의 자제’로 바꾼다.

[9 ~ 10] 다음은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얼마 전 휴대전화를 두고 온 날, 집에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떨떨매고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러한 일이 ‘디지털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저 또한 디지털 기기를 4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디지털 치매’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처럼 자신이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어 가는 것은 여간 ㉣문제입니다. ‘디지털 치매’인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지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A]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자꾸만 의존하게 되는 이유와 ‘디지털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휴대전화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의 전화번호 몇 개 정도는 외워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9.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떨떨매고’로 고쳐야 해.
 - ②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③ ㉢은 앞 문장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그런데’로 바꿔야겠어.
 - ④ ㉣은 문장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문제가 아닙니다’로 고쳐야 해.
 - ⑤ ㉤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진찰할’로 바꿔야 해.

10. 게시판에 올린 다음의 댓글 중, [A]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① ↳ 우리의 전통문화는 소중합니다. 컴퓨터게임 대신 옷놀이와 같은 전통 놀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② ↳ 정보 강국이라 불릴 만큼 디지털 기기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보 강국에 걸맞은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③ ↳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습관을 가져 봅시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④ ↳ 평소 명상하는 시간을 자주 갖거나, 마음을 편히 먹어야 합니다. 자연 환경을 가까이하면서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⑤ ↳ 디지털 기기들이 인간의 활동을 대신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는 키보드를 사용하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어떨까요?

11. 다음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학습한 결과이다. ㉠~㉣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습 자료	* 옷에 단추를 <u>달</u> 다. * 과일은 대부분 맛이 <u>달</u> 다.			
문제 제기	‘달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떤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학습 결과	결합 방법	동사	형용사	
	의도를 나타내는 ‘-려 한다’를 붙여본다.	○	×	— ㉠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를 붙여본다.	○	×	— ㉡
	청유형 종결어미 ‘-자’를 붙여본다.	×	○	— ㉢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를 붙여본다.	×	○	— ㉣
※ ○ : 결합 가능, × : 결합 불가능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2.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감기약을 먹은 효과가 급세 나타났다.
 - ② 나는 삼촌에게 빨리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곤 했다.
 - ③ 어머니는 며칠째 몸도 못 추스리고 누워만 계신다.
 - ④ 그는 여러 논문을 짜깁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⑤ 내 동생은 걸핏하면 아이스크림을 사 달라고 생떼를 부린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인]**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A]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나) 누이야
㉠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날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른 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山茶花)*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 두고
더러는 ㉥일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B]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날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옴을

—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 그리메 : ‘그림자’의 옛말
* 산다화 : 동백꽃
* 산문 : 절 혹은 절의 바깥문

(다) 저무는 하늘
동짓달 서리 묻은 하늘을
아내의 신발 신고
저승으로 가는 까마귀,
까마귀는
남포동 어디선가 그만
까옥 하고 한 번만 울어 버린다
오륙도를 바라고 아이들은 돌팔매질을 한다.
저무는 바다,
㉦돌 하나 멀리멀리
아내의 머리 위 떨어지거라.

— 김춘수, 「이중섭 4」—

13. (가)~(다)를 묶어 시집을 만들려고 한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그리움의 숲을 거닐며
- ② 사랑, 후회, 그리고 절망
- ③ 변치 않는 꿈에 대한 열망
- ④ 황량한 현실, 이상향을 찾아서
- ⑤ 시간이 흐를수록 또렷해지는 슬픔

14. ㉠~㉥ 중 (가)의 **[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보기>는 (나)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답한 학생의 답변 중,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3점]

—<보 기>—

교사 : ‘산문’은 단순히 절문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경계의 문으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즉, 이 시는 불교적 내세관과 인연설에 기초하여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과 한(恨)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시킨 작품이지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를 해석해 봅시다.

- ㄱ. 1연에서 ‘빠지다, 죽다’의 하강 이미지는 ‘일어서다, 살아오다’의 상승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ㄴ.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 ‘살아서 튀는 물방울’은 누이의 부활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ㄷ.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 두고’라는 표현은 누이의 한이 죽음을 통해 극복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ㄹ. ‘강물’, ‘못물’의 ‘물’의 이미지는 화자가 현재 느끼는 회한의 정서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6. [A], [B]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B]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거리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있다.
- ② [A], [B]에서는 삶과 죽음의 거리를 뛰어넘고자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 ③ [A], [B]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거리는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
- ④ [A]는 [B]와 달리, 삶과 죽음의 괴리감을 인식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⑤ [B]는 [A]와 달리,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극복하고 있다.

17. <보기>를 보고 (다)를 창작했다고 가정할 때, 작가의 창작 과정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그림은 이중섭의 ‘달과 까마귀’이다. 전쟁 피난 중 아내와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낸 이중섭은 부산에 홀로 남아 부두에서 일을 하며 그림을 그렸다. 하늘을 배경으로 무리로 모여드는 까마귀를 그린 이 그림은 당시 이중섭이 느꼈던 가족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과 현실의 궁핍함에 대한 내면적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 ① 실제 지명을 드러내어 구체성을 띠도록 하자.
- ② 공간적 배경을 하늘에서 바다로 확장하여 보여주자.
- ③ 까마귀의 불길한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아픔을 드러내자.
- ④ 달을 배경으로 한 하늘을 서리 묻은 하늘로 묘사하여 차갑고 스산한 분위기를 강조하자.
- ⑤ 무리로 모여드는 까마귀들을 홀로 날아가는 까마귀로 바꾸어 고독의 이미지를 드러내자.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독을 상징하는 행위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의 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의지를, ㉡은 화자의 염원을 나타낸다.
- ④ ㉠은 화자의 감성을, ㉡은 화자의 이성을 자극한다.
- ⑤ ㉠은 현실의 비정함을, ㉡은 현실의 냉혹함을 나타낸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를 보러 가도, 커피를 마시러 가도 어디서나 포인트 카드의 소지 여부를 물어본다. 포인트 카드가 있으면 값을 절반 가까이 깎아주거나, 포인트로 ㉠적립해서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해준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제값을 다 내면 왠지 나만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회사마다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

일까? 포인트 카드는 단골손님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영화를 볼 때 A영화관 포인트 카드가 있으면 다른 영화관보다 A영화관으로 가려 할 것이다. B문고 포인트 카드가 있으면 책을 살 때 B문고를 먼저 찾을 것이다. 하지만 너도나도 포인트 카드를 만들면서 기업이 포인트 카드로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B문고 포인트 카드를 가진 사람 중에는 C문고 포인트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B문고에 가나, C문고에 가나 결국 같은 값을 지불한다. 특별히 B문고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포인트 카드는 경제학에서 볼 때, ‘가격차별’의 한 유형이다. 가격차별이란, 말 그대로 동일한 물건을 파는데 사는 사람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영화를 보는데 포인트 카드가 있는 사람은 돈을 덜 내고, 포인트 카드가 없는 사람은 돈을 더 내는 것이다. 기업들이 가격차별 정책을 펴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동일한 물건이라도 각 개인에게 주는 가치는 다르다. 가치가 다른 만큼 각 개인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도 다르다. 즉, 동일한 물건에 대한 ‘유보가격’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유보가격은 어떤 물건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의 가격을 말한다. 가령, ‘해리포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영화표를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화 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리포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값을 받고, 아닌 사람에게는 조금 낮은 값을 받는 것이 영화관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된다.

할인 판매 기간 중 백화점에 가면 상품마다 두 개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둘 중 높은 가격이 ‘정상가격’이고 낮은 가격이 ‘할인가격’이다. 어떤 백화점에서는 할인 판매 기간 중 물건을 사면 영수증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기도 한다. “고객님은 오늘 15만 원을 절약하셨습니다.” 정상가격이 50만 원인데 할인가격인 35만 원에 물건을 샀으니 15만 원을 절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물건을 어떤 때는 50만 원에 팔고 어떤 때는 35만 원에 판다면, 이 물건의 정상가격을 5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평균을 내서 40만 원 혹은 45만 원 정도를 정상가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비자가 할인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절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바가지쓰기’가 된다.

포인트 카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포인트 카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격이 사실은 ‘할인가격’이 아니라 포인트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격이 ‘바가지가격’이 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할인가격이 실제로는 정상가격이고,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은 바가지가격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19.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핵심이 되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사례를 들어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물음을 던지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⑤ 실생활의 문제를 화제로 삼아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 다음은 한 영화관의 요금표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해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요일	시간대	일반		청소년	
		요금	포인트 적립	요금	포인트 적립
월~목	조조 1회	4,000원	×	4,000원	×
	2회~6회	7,000원	○	6,500원	○
	심야	7,000원	×	6,500원	×
금~일 공휴일	조조 1회	5,000원	×	5,000원	×
	2회~5회	8,000원	×	6,000원	○
	6회	7,000원	○	6,000원	○
	심야	6,000원	×	6,000원	×

- ① 8,000원은 토요일 5회에 극장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의 유보 가격이다.
 ② 월요일 6회 상영과 심야 상영 사이에 포인트로 인한 가격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휴일 5회, 6회, 심야 상영 사이에는 가격차별의 의미가 없다.
 ④ 월요일 심야에 지불하는 가격은 조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는 바가지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일요일 3회에 극장을 이용하는 청소년 고객은 일반 고객에 비해 가격 할인의 혜택을 받고 있다.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 ㄱ. 포인트 카드 제도는 유보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업의 전략이다.
 ㄴ. 기업의 포인트 카드 제도는 소비자를 단골손님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ㄷ. 포인트 카드 제도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하고자 하는 장치이다.
 ㄹ. 대다수가 포인트 카드를 갖고 있다면, 포인트 카드를 통한 가격 할인은 진정한 의미의 할인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쌓아서 ② ㉡ : 가지고
 ③ ㉢ : 매기는 ④ ㉣ : 내고자
 ⑤ ㉤ : 늘이는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윗사람에게 친구를 소개시킬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방송의 교양 프로그램에 나온 강사가 자신이나 남을 소개하는 법에 관해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상황별 다양한 소개법을 설명한 방송 내용은 유익했지만, ‘소개시키다’란 잘못된 표현이 ‘옥에 티’가 되었다. 우리 역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쓰는 말들 중, ‘-시키다’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에서 ‘시키다’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우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철수에게 일을 시켰다’, ‘영수에게 공부를 시켰다’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란 뜻으로 타동사로 쓰인다.

또 하나는 접미사로서의 쓰임새가 있다. 이때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에 붙어 사동(使動)의 뜻을 갖게 해준다. 사동이란 어떤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동의 의미를 주는 표현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 -히-, -리-, -기-’ 등과 같은 사동 접미사를 붙이거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시키다’를 붙여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동 용법 오류는 이 ‘-시키다’를 무심코 아무 곳이나 붙이는 데서 발생한다.

문장 속에서 ‘-시키다’형의 동사가 나올 때는 주어 이외에 실제 행위를 담당하는 또 다른 행위 주체가 있다. 예컨대 ‘상품을 개발하다’와 같은 말은 이 말을 이끄는 주어가 하나이지만 이를 ‘개발시키다’로 바꾸면 ‘누군가에게 시켜 개발하게 하다’란 의미가 되어 ‘개발’의 실제 행위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시키다’의 오류는 대개 이 차이를 무시하고 ‘-하다’ 형태로 써야 할 말에 습관적으로 ‘-시키다’를 붙이면서 발생하는다. 예컨대 자신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시키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시켜 주차했다’는 뜻이 된다. 흔히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시켜서 소화하게 하는 게 아니므로 잘못 쓰는 말이다.

‘접수(接受)’란 말의 용법도 고민거리다. 이 말은 ‘무언가를 받는다’는 뜻이다. 쓰이는 상황에 따라 ‘㉠접수하다, ㉡접수되다’가 모두 가능하다. 가령 대학에서 입학원서를 받는 상황이라면, ‘접수했다’란 말의 주체는 언제나 ‘대학’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원자들이 막판까지 눈치작전 끝에 원서를 접수했다’란 말을 흔히 쓴다. 물론 틀린 표현이다. ‘접수했다’ 자리에 ‘접수시켰다’를 쓰기도 하는데 이 역시 옳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대학으로 하여금 원서를 접수하게 했다’란 뜻이 되기 때문이다. ‘접수시키다’란 말이 바르게 쓰이는 상황을 굳이 설정하자면 ‘대학 당국은 창구 직원에게 마감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해 접수시켰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결국 ‘접수’란 단어는 지원자를 주체로 해서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지원자를 주어로 쓰고 싶을 때는 ‘내다’ 또는 ‘(㉢)’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제 서두에 나온 문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은 ‘내가 나의 친구를 윗사람에게 소개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를 ‘소개시키다’라고 하면 엉뚱하게 ‘윗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친구를 소개하게 하다’란 의미가 되는 것이다.

23.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나는 어제 은행에 가서 물건 값을 입금시키고 왔다.

ㄴ.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우리 회사가 사용법을 교육시켜 드립니다.

ㄷ. 지원자들이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벌인 끝에 대입원서를 접수시켰다.

- ① ㄱ은 ‘누군가에게 시켜 입금하게 했다’는 의미이다.
- ② ㄴ은 ‘회사가 다른 행위 주체에게 시켜 교육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 ③ ㄷ은 ‘대학으로 하여금 원서를 접수하게 했다’는 의미이다.
- ④ ㄱ, ㄴ은 사동형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시키다’를 결합하고 있다.
- ⑤ ㄱ~ㄷ의 밑줄 친 ‘-시키다’는 모두 ‘-하다’로 바꿔 쓸 수 있다.

24. <보기>를 참조할 때, ‘㉠ : ㉡’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 : 명사 + 접사(-하다) ⇒ 능동표현

㉡ : 명사 + 접사(-되다) ⇒ 피동표현

- ① 걱정하다 : 걱정되다
- ② 결정하다 : 결정되다
- ③ 부족하다 : 부족되다
- ④ 생략하다 : 생략되다
- ⑤ 진행하다 : 진행되다

25. ㉠에 들어갈 어휘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제기(提起)하다
- ② 제출(提出)하다
- ③ 제안(提案)하다
- ④ 제의(提議)하다
- ⑤ 제시(提示)하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락 줄거리> 그림에 대해 조급함을 보이는 세민과 달리 유당은 ‘손 공부가 급한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 사람 공부, 세상 공부가 더 소중한 것’이라며 허드렛일을 비롯한 흠일과 끼니를 챙기는 일만 시킨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될 즈음,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세민은 고향

으로 돌아가 고된 농사일을 다시 하게 된다.

크거나 작거나 그림의 법식은 물론 그림 일 자체를 털털 털고 산을 떠난 셈이었다. 그러자고 굳이 푹부러지게 작심을 하고 나선 일은 아니었다. 유당에게 분명한 하직을 고하고 온 것도 아니었다. 우선은 아버지의 장례치레가 하산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세민은 산을 내려오면서 이미 그 유당과의 마지막 결별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오랜 그림의 길도 끝장이 나고 있음을 알았다. 유당도 그런 세민의 심중을 익히 짐작한 듯 어른의 장례를 잘 치러 모시라는 당부밖엔 더 오라 가란 말이 없이, 당신으로선 모처럼 그 그림 일을 많이 앞세우는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네 사는 일을 버리지 않으려거든 그림 일을 버리지 말거라. <중략>

말할 것도 없이 육신의 괴로움 때문이었다. 세민은 잠을 깨고 일어나서도 그 꿈속에서의 괴로움이 가시지 않고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일에 쫓기고 열중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지만, 잠자리엘 들면서도 그저 나른하기만 하던 몸뚱이 곳곳에서 꿈속보다 더한 아픔들이 목직하게 번져났다. 얼굴은 쓰리고 더수기*는 뻗뻗하고, 어깻죽지 영치받이께 무릎 종아리들은 쭈시고 아리고, 사대 육신 마디마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들을 말리고 드는 따가운 햇볕과 지친 소처럼 버거운 지게질과 잦은 허리 힘 일들이 그의 몸 속 곳곳에 심어놓은 노역의 자국들이었다. 그 육신의 아픔이 물것들이 떠메어가도 모를 만큼 피곤한 잠 속을 빌려 그를 쇠침승으로 화신시켜놓은 것이었다.

세민이 차츰 다시 그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그 소의 꿈과 그 쇠침승의 화신을 통해 확인한 생생한 육신의 아픔 때문이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그것은 일테면 유당이 그 땅이나 흙이나 사는 일들에 대한 참사랑을 배우는 길이라 뒤늦게 일깨워온 그 아픔이란 것의 본색일시 분명했다.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배우자고 긴 세월 텃밭 산밭 흠손 일을 익히고도 세민에겐 끝내 별 가망이 없었던 그 아픔, 그것은 필시 그림이나 삶의 방편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배울 수도 없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세민이 그 아픔도 사랑도 끝내 다 포기하고 유당을 떠난 지금, 그림이나 삶의 법식을 다 포기하고 그의 절뚝한 생존의 마당으로 돌아와 허덕 허덕 지친 지금, 그것이 성큼 증상을 깃들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등지를 틀기 시작한 그 증상은 날이 갈수록 또렷해져 여름과 가을까지 끈질기게 그를 괴롭혀댔다.

하고 보면 그 흙이나 삶에 대한 사랑 역시 어떤 법식이나 방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삶 가운데에서 배우고, 배움에서가 아니라 살아감에서 움이 돋고 자라가는 것임이 분명했다. 아픔을 배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앓는 것, 그 아픔을 숙명의 삶 속에서 앓아가는 것이 사랑이었다. 자신의 온 몸뚱이로 그 아픔을 참고 앓아나감이 사랑이었다.

방법이 옳았는지 글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자신은 그런 각성과 몰입 속에 정작으로 그걸 얼마나 품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유당이 오랜 세월 그의 그림을 위한 큰 삶의 법식으로 그에게 심어주려 한 아픔이나 사랑도 필경엔 그런 아픔, 그런 사랑이었음이 분명했다.

다름아니라 ㉢세민은 그 봄과 여름철 그리고 가을철까지의

줄기찬 노역과 어느새 깊은 지병으로 등지를 들고 들어앉아 버린 몸 속의 아픔을 앓아가며 문득문득 그 그림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법식을 넘어서 아픔의 각성 때문이 아니었다. 그림에 대한 새 욕심이나 자신감이 솟아서도 아니었다. 그 아픔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함께 안아 참고 앓으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 한 시절 그 하늘과 들판과 새의 비상을 그렸을 때처럼 그 절박스럽고 막막한 아픔과 일상의 삶들을 나름대로 잘 참아 이겨나갈 길을 다시 소망하게 된 때문이었다. ㉔그 간절한 소망을 달리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여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나고 텅 빈 들녘만 남았을 때, 세민은 불현듯 다시 붓을 찾아 들었다. 새털구름이 드문드문 비껴 깔린 철 늦은 가을 하늘을 실에 매인 연처럼 무한정 떠돌고 있던 한가로운 새 짐승, 한 마리 술개 놈의 드높은 비행이 그에게 문득 그 아득한 신열기를 느끼게 해오던 날 저녁, 밤새도록 그 괴로운 신열기에 시달리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였다. 그는 그 아침까지도 가지지 않은 무거운 신열기 속에 신음을 토하듯 온종일 그림에 매달렸다. 빈 들녘을 그리고 새털구름 드높은 하늘을 그리고 하염없이 한가로운 새의 비행을 그렸다. 오래 팽개쳐둔 일이라 물론 그림이 쉽지 않았다. 손이나 손목 놀림이 무디어져 산에서 익혔던 먹붓질마저도 마음을 잘 따라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고약한 신열기가 견혀 가실 때까지 몇 번씩이고 그림을 다시 고쳐 그렸다. 나중에는 그 들녘과 하늘과 새뿐만 아니라 화면 아래쪽에 한 마리 소의 형상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몸 속에 괴로운 신열기를 참으며, 그로 하여 그 드높이 한가로운 새의 비행을 더욱 아프게 꿈꾸고 누워 있는 소, 그 꿈마저 괴롭게 앓고 있는 소였다.

㉕하고 보니 이전과는 완전히 그림이 달라져갔다. 그 신열기를 앓는 소로 하여 새의 비행은 더욱 드높고 유유했다. 눈부신 자유, 황홀한 꿈이었다. 그러나 화면 전체로 보면 그것까지도 그 소의 눈길로 하여 오히려 빠가 시린 자유, 황홀한 절망이 되고 있었다. 붓질이 아직 무디고 더 다듬어 그려 나가야 할 곳이 많았지만, 세민은 이미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들판과 하늘과 새들이 그에게로 조금씩 다가들어 오고 있는 느낌 속에 한겨울 내내 그 그림 일에 매달렸다. 여전히 그를 찌뿌드드하게 괴롭혀대는 신열기를 견디며 그 들판과 하늘과 새의 꿈들을 그의 아픈 삶과 괴로운 황소의 그림으로 지그시 껴안아갔다.

— 이청준, 「날개의 집」 —

* 더수기 : '뿔덜미'의 옛말

2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이 내용을 신뢰하도록 표현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의 주체를 바꿈으로써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면서 인물의 분열된 내면세계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27. <보기>는 '예술가 소설의 유형'에 관한 과제물의 차례이다. 위 글이 위치할 곳으로 적절한 부분은?

— <보 기> —

I. 예술가 소설의 정의

II. 예술가 소설의 유형

1. 소외된 예술가의 한 ——— ①
2. 예술을 통한 현실 개혁 ——— ②
3.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의 가치 ——— ③
4. 삶의 고통을 통한 예술적 승화 ——— ④
5. 전통적 예술관과 근대적 예술관의 갈등 — ⑤

III. 마무리

28. 위 글의 흐름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각 단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스승과의 만남 ⇒ 갈등 및 결별 ⇒ 자기반성 ⇒ 완성

- ① 세민은 스승과의 만남에서 깨달음을 얻어 현실의 시련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 ② 스승과의 갈등 및 결별은 예술적 완성에 이르기 위해 세민이 거쳐야 했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스승과 결별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는 '아버지의 죽음'이었지만, 근본적 계기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세민의 불신과 회의 때문이었다.
- ④ 세민 자신이 소가 되는 꿈이나, 몸으로 느끼는 '신열기' 등은 세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자기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⑤ 유당이 심어주려 한 아픔이나 사랑을 세민은 '줄기찬 노역'을 통해 깨닫고, 그림을 통해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29. ㉑~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유당은 그림 일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② ㉒ : 세민은 유당이 가르치고 싶어 했던 삶에 대한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스승 곁을 떠나고 나서야 느끼기 시작했다.

- ③ ㉔ : 세민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내면화하면서 그림 일을 소망하게 됐다.
- ④ ㉕ : 세민은 삶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㉖ : 세민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그림을 그렸으나,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D. Hume)은 우리가 사물들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지만, 행동의 원동력은 욕구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 이성은 우리에게 목적을 정해줄 수 없고, 단지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는 방법만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감정의 노예’라고 주장했다. 이성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알려줄 뿐, 무엇이 덕이고 악덕인지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우리가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명령인 실천이성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했으며,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미보다 ‘이성’은 협소하게, 그리고 ‘감정’은 폭넓게 정의했다.

이렇듯 인간의 이성을 협소하게 정의함에 따라 도덕의 영역이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흄은 도덕을 불변의 인간 욕구에 기초했다고 보았으므로, ㉑“나의 손가락의 상처보다 전 세계의 파멸을 더 선호하는 것은 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악의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다. 어떠한 욕구나 선호도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매도될 수 없고, 사회적 압력이나 이성에 의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성은 주어진 목적에 대한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는 아니라고 흄은 생각했다. 그러나 흄은 이기주의자가 아니다. ㉒“인디언이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곤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의 완전한 희생을 선택하는 것 역시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다른 사람의 선(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도덕을 ‘감정’의 문제로 바라보았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바라보고 갖게 되는 도덕적 판단이 모두 다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극심한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흄은 이와 관련하여 공감이라는 기제를 제시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고통에 자극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능력, 즉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이 흄이 제시한 공감이었다. 곧, 흄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에서 선(善)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도덕이 이타적 관심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결국 흄은 공감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공유한 것으로서 도덕적 특질의 주요 원천이라고 본 것이다.

흄이 우리가 특별히 선호하는 사람에 대한 선의보다는 인류 전체로 확장되는 선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성’과 ‘감정’을 구별하면서도, 적절한 감정은 ‘인류의 행복에 대한 시인(是認)의 감정’이나 ‘인류의 불행에 대한 부인(否認)의 감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연민이나 동정심 같은 제한된 공감과 자기 이익에 토대를 둔 도덕적 관점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다시 말해 흄은,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사회적 감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의를 베푸는 범위가 넓은 좁든 간에, 이제 도덕은

인간에 내려지는 명령이나 요구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 성품의 결과일 뿐이다. 흄의 이러한 윤리설은 사회적 차원의 쾌감과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에 공리주의 윤리의 모태가 되었다.

30. 위 글에 나타난 흄의 입장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이성은 목적을 정해줄 수 없고 수단을 모색할 뿐이다.
 - ② 공감이란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다.
 - ③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 ④ 어떠한 욕구나 선호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매도할 수 없다.
 - ⑤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31. ㉑과 ㉒을 통해 흄이 강조하려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감정은 이성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 ② 인간은 본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③ 인간의 이타적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 ④ 인간은 사회적 본성보다는 자기애의 본성을 더 중시한다.
 - 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므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32.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광문은 병든 걸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쫓기던 중 남의 집에 숨어들었다가 도둑으로 몰리게 된다. 하지만 집주인은 광문을 순박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를 풀어준다. 그러던 어느 날, 광문은 걸인들이 동료의 시신을 다리 밑에 버리는 것을 보고, 이를 안타까워하며 정성껏 장례를 치러준다. 그것을 본 집주인은 그가 의롭다고 생각하여 약방 점원으로 추천한다. 어느 날 약방의 돈이 없어지자 약방 주인은 광문을 의심하지만 광문은 변명하지 않는다. 얼마 후 광문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약방 주인은 광문의 사람됨에 감동받아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 후 광문은 장안의 모든 사람들로 부터 칭송받는 사람이 된다.

— 박지원, 「광문자전」 줄거리 —

- ① 광문의 행동은 ‘사회적 압력이나 이성’에 의한 것은 아니겠군.
- ② 광문이 걸인의 장례를 치러준 것은 ‘공감’에서 나온 행동이겠군.
- ③ 집주인은 광문의 행동이 ‘이성’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군.

- ④ 장안 사람들은 광문의 행동에서 ‘사회적 차원의 쾌감’을 느꼈
 겠군.
 ⑤ 동료의 시신을 방치한 결인들은 타인에 대한 ‘이타적 관심’이
 적은 사람들이군.

[33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 기사실

김창호 : 선생님…….

홍 기자 : 뭘니까?

김창호 : 저 모르시겠습니까?

홍 기자 : 당신 누군데?

김창호 : 홍 기자님이시죠?

홍 기자 : 그런데요?

김창호 : 저 김창호입니다.

홍 기자 : 김창호? 여보 김창호란 이름이 한두 개요?

김창호 : 동진 광업소 동5 갱에 묻혀있던 광부 김창호.

홍 기자 : 아? 김창호 씨?

김창호 : (반갑다) 역시 절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
 니다. 모두 참 고마웠지요.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홍 기자 : 그런데 뭐 볼일 있수? 나 지금 바쁘데…….

김창호 :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비도 떨어
 어지구…….

홍 기자 : ㉠이거 가지구 가시우. 그리고 아래층 광고부에 가
 면 사람 찾는 광고 취급합니다. 나 바빠서……. (김창호를
 무시하고 다시 논문을 본다)

김창호 멍하니 말을 잃는다. 홍 기자가 논문의 마지막 부분
 을 읽는 동안 천천히 퇴장한다.

[A] 홍 기자 : 결론, 따라서 마스크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마스크는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긴요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마스크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
 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마스크 커뮤니케이션! 마스크!
 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중략>

26. 현장

TV 카메라가 가운데 설치되고 있다. 구경꾼들 호기심에
 카메라 앞에 몰려 있고, 경찰은 정리에 바쁘고, 홍 기자 마이크
 잡고 방송 준비. 카메라에 라이트 비친다.

홍 기자 :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동민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
 다. 메탄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채탄 작업 중이던 광부
 34명이 매장됐습니다. 그러나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광부 중 폭발한 갱구 아래쪽 대피소에 있던 배관공 22세
 이호준 씨가 아직 살아 있음이 지상과 연결된 배기 파이프
 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난 갱구

입구입니다.

이때 이불 보따리를 멘 김창호 일가 등장한다. ㉡홍 기자,
 김창호를 발견한다.

홍 기자 : 김창호 씨. 잠깐만!(이불 보따리를 벗겨 카메라 앞
 에 세운다)

홍 기자 : 시청자 여러분! 기억에도 새로운 매물 광부 김창
 호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갱구 매물
 로 16일간 갱구에 갇혀 있다 무죄 같은 의지와 강인한 육
 체로 살아 남은 김창호 씨!

㉢구경꾼들 일제히 김창호 씨에게 시선 주며 박수친다.

홍 기자 : 김창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 1천 2
 백 미터 갱내 대피소에 배관공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
 이 구출될 때까지 갱 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김창호 : 예, 먼저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이 났다) 제
 경험으로 봐서 배고픈 건 움직이지 않으면 참을 수 있는데
 추운 건 견디기 힘듭니다. 전구라도 있으면 안고 있어야
 합니다. 배기 펌프로 공기도 계속 넣어줘야 되구요.

그 사이 기자 한 사람 뛰어 나와서 홍 기자에게 귀엣말 한
 다. 홍 기자 마이크 뺏어 자기 말을 한다.

홍 기자 : ㉣방금 살아 있던 것으로 알았던 배관공의 죽음이
 확인됐습니다. 공기를 공급하던 배기 파이프에 가스가 차
 서 질식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선군 사고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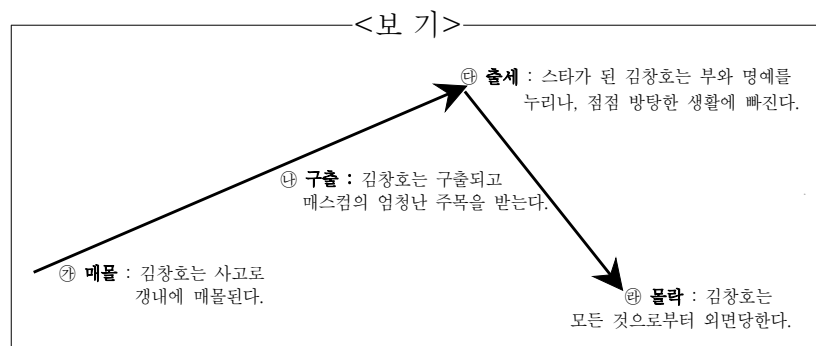
카메라 치운다. 구경꾼들 이제 흥미 없다는 듯 카메라를 따
 라 나간다.

김창호 : (정신없다) 여보세요.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갱 속
 에서 오래 견디려면 바깥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그저 꼭
 참고…… 언젠가는 빛이 보이겠지 하는 희망을 갖구……
 희망…….

㉤김창호 씨 일가 외엔 아무도 없다.

— 윤대성, 「출세기」 —

33. <보기>는 전체 줄거리에 따른 ‘김창호의 출세기(出世記)’를
 상승과 하강 구조로 정리해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감상한 내용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4, 26 장면은 ㉤로 하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 ② 24 장면에서 김창호는 홍 기자가 ㉠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길 바라고 있어.
- ③ 26 장면에서 김창호는 여전히 ㉡에서처럼 마스크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있어.
- ④ 26 장면에서 김창호는 자신의 몰락이 결국 ㉢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있어.
- ⑤ ㉡~㉢로 표현되는 김창호의 ‘출세(出世)’는 ‘갯 속에서의 구출’과 ‘세속적 출세’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34. 위 글 전체에서 [A]가 갖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스크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물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고발하고 폭로한다.
- ② 사건의 진실성을 추구하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을 보여준다.
- ③ 마스크에 빠져들어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을 희극적으로 그려낸다.
- ④ 마스크의 허위를 드러내는 인물이 비판의 메시지를 직접 말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여준다.
- ⑤ 돈과 출세에 초점이 맞춰진 현대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인물이 겪는 아픔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35.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려고 할 때,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대사를 할 때, 홍 기자가 천 원짜리를 던져주며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연기해야겠지?
- ② ㉡에서 홍 기자는 김창호를 불러 세우기 위해 무대 위를 가로지르며 빠르게 달려가는 게 좋겠어.
- ③ ㉢에서 김창호는 처음에는 머뭇거리지만, 곧이어 구경꾼들에게 손을 들어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게 어떨까?
- ④ ㉣을 말할 때 홍 기자는 배관공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며 힘 없는 목소리로 대사를 해야겠지?
- ⑤ ㉤에서 조명을 김창호 일가에게만 비추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좋겠어.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미술의 특징 중 하나는 작가가 수공예적 솜씨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조각가가 설계도를 작성해서 공장에 가져다주면 공장의 인부들이 조각가가 원하는 대로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준다. 심한 경우 다른 누군가의 작품을 그대로 복제해서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예술로 인정받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 미술은 작가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작품을 예술 행위로 인정한다.

그 원인의 제공자는 사진이다. 사진술 발견 초기에 사진은 기존 미술의 미학적 담론과 형식을 모방해서 예술이 되고자 했다. 이제 현대 미술은 거꾸로 사진을 모방해서 예술이 되려

고 한다. 현대 미술의 현상은 따지고 보면 사진 작품을 제작해서 예술로 인정받는 행위와 많이 닮아 있다. 사진은 기계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현상과 인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촬영 행위 또한 카메라의 자동기계 속성상 작가의 장인적 솜씨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사진은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으로 사진은 완벽하게 현실의 외형을 재현한 것으로서 플라톤(Platon) 이후 끊임없이 따라다닌 미술의 모방론적 예술 관념을 완벽하게 실현시킨 것처럼 보였다. 사진술 발명 이후, 사진 이미지는 인간의 기억을 대체하는 표상 체계로 자리 잡아 왔고, 이제는 경험 자체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상을 통한 경험을 마치 실제의 경험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사진 이미지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 이미지는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현실 그 자체는 아니며, 현실의 외형을 복제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게다가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 원본의 의미가 사라진 시점에서 복제들은 급기야 ‘진짜’처럼 작용하고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원본을 대체한 ‘가짜’, 바로 이것이 사진의 ‘시물라크르(simulacre)’이다.

‘시물라크르’는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G. Deleuze)가 확립한 철학 개념으로 원래 플라톤에 의해서 제시된 이데아(idea)와 구별되는 철학적 명제다. 플라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원형인 이데아, 이데아의 복제물인 현실, 현실의 복제물인 시물라크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는 복제하면 복제할수록 이데아와 멀어지게 되므로 현실을 복제한 예술 작품을 가치없는 것으로 보았다. ㉤가령, 사람을 그린 회화 작품은 이데아를 복제한 불완전한 인간을 다시 또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불완전한 ‘가짜’, 즉 시물라크르인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의 시물라크르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시물라크르의 진정한 개념적 정의는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서 자신이 ‘가짜’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짜’임을 스스로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물라크르는 원본을 뛰어넘어 새로운 자신의 공간을 창조해가는 역동성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사진처럼 현실을 모방하는 미술의 재현 행위는 전통적인 재현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지의 무제한 복제와 대상이 없는 이미지의 재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이 시점에서 플라톤의 모방론적 예술관은 그 권위와 힘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6. 위 글을 현대 미술 강연의 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 강연의 테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상적 관념을 형상화하려 한 현대 미술
- ② 전통적인 재현의 개념을 무너뜨린 현대 미술
- ③ 더 이상 사물의 이미지를 복제하지 않는 현대 미술
- ④ 가상의 세계를 통해 숨겨진 무의식을 표현한 작품들
- ⑤ 뛰어난 솜씨를 포기하여 예술의 권위를 획득한 작품들

3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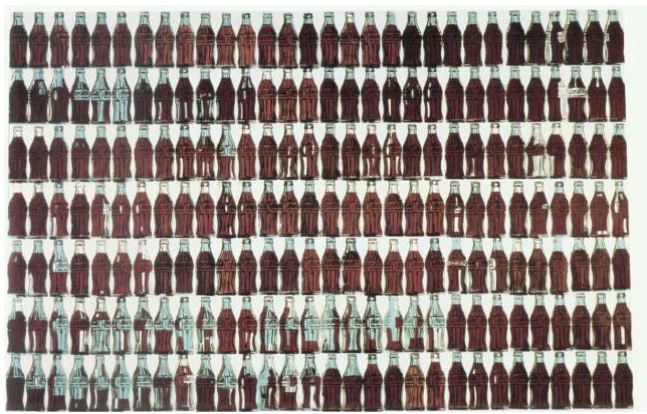
- ① ㉠은 작가의 수공예적 솜씨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앞의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내용이 뒤에 올 것임을 알려준다.

- ② ㉞는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앞의 내용보다 더 협소하게 제한된 사진의 속성이 제시될 것임을 알려준다.
- ③ ㉟는 실재를 대체한 사진 이미지가 사실은 복제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앞의 내용보다 심화된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알려준다.
- ④ ㉡는 플라톤의 예술 작품에 대한 견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예가 이어질 것임을 알려준다.
- ⑤ ㉢는 미술이 사진을 모방하게 되면서 초래된 결과가 다음 내용에 올 것임을 알려준다.

38. 위 글을 읽고 난 후, <보기>를 접한 학생이 수행한 과제の内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앤디 워홀의 작품 ‘코카콜라병(Coca-Cola Bottles)’이다. 콜라병을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실크에 도안하여 콜라병 사진을 복제, 복제한 것을 또 다시 복제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품을 찍어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 그림은 ①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를 상징하는 코카콜라를 소재로 해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현실, 그 자체를 드러냈다. ② 그림에 재현된 콜라병의 이미지는 실제 콜라병을 모방한 것은 아니다. ③ 복제의 복제물, 즉 진짜가 아닌 가짜인 시뮬라크르인 것이다. 그리고 ④ 작가는 무수한 반복을 통해 콜라병의 이미지가 복제의 복제물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국 ⑤ 작가는 이미지를 무제한 복제하는 것도 예술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9. <보기>는 플라톤과 들뢰즈의 대화를 가상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플라톤 : 저는 어차피 예술이란 저급한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_____ A _____

들뢰즈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_____ B _____

- ① A : 예술 작품은 현실을 복제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 ② A : 예술 작품은 이데아 그 자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③ A : 복제는 세계의 원형인 현실에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 ④ B : 복제는 오히려 또 다른 의미의 창조입니다.
- ⑤ B : 복제물은 원본을 뛰어넘어 그 자체로 독립적입니다.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측우기는 1441년(세종 23년)에 당시 세자였던 문종의 아이디어와 장영실의 기술로 처음 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땅에 스며든 빗물의 양을 잴는데, 그러다 보니 땅의 상태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져 정확한 강우량을 알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새롭게 제작된 측우기는 주철이나 청동으로 용기를 만들고, 거기에 빗물이 고이면 눈금이 새겨진 주척이라는 자로 비의 양을 재기 때문에 정확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 자연현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려고 했다는 데 측우기의 과학성이 있다. 세종은 이렇게 동일하게 제작된 측우기를 각 지방 관아에 보내 측정 결과를 보고하게 했다. 그 결과 각 지방의 우량을 보고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현존하는 실제 측우기는 3단 분리형 구조이다. 전체를 조립했을 때, 전체의 길이는 31.4 cm로, 상단 10.6 cm, 중단 10.5 cm, 하단 10.3 cm의 길이로 되어 있다. 안지름은 14 cm, 바깥지름은 15 cm 정도이다. 그러면 왜 하필 3단으로 나누었을까? 우선, 각 단의 경계가 자의 눈금 역할을 하게 되어 주척을 쓰지 않아도 측우기 안의 물의 양을 대강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측정의 편리성을 들 수 있다. 3단으로 나눔으로써 강우량이 1단, 또는 2단의 용기를 넘지 않을 경우, 원통을 분리하면 주척으로 강우량을 재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정조는 측우기의 수심을 보고할 때는 하루에 세 번 정해진 시각에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자료는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특히 1770년부터 1907년까지의 서울 지역의 강우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강우량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연중 측정된 강우량 중 홍수기의 관측 자료는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홍수 피해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측우기에 의한 강우량 측정은 현대적 기상 장비가 도입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측우기에 의하여 측정된 강우량은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겨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용되기 위해서 관측된 것이다. 『정조실록』 23년(1799년) 5월 22일에는, 정조가 8년간의 강우량 통계를 비교하면서 금년도의 강우량과 비교하여 농사 걱정을 하는 기록이 있다. 특히 호서 지방과 영남 지방의 지역별 강우량까지 비교하고 있다. 이처럼 정조는 과거의 연 강우량

통계치를 가지고 가뭄의 심한 정도를 판단하였으며, 월별·지역별로 예전의 자료와 비교하여 농사에 이용했다. 이러한 비교 방법은 과거 통계치를 이용하여 현재의 상황과 지역적 분석을 하는 현대적인 강우 측정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40.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측우기는 주철이나 청동으로 제작되었다.
 - ② 홍수 피해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 ③ 측우기의 상단, 중단, 하단의 깊이는 각각 달랐다.
 - ④ 세종 때 세계 최초로 우량 측정 방법이 수립되었다.
 - ⑤ 빗물의 양을 편리하게 측정하기 위해 측우기를 분리하였다.
41. 위 글을 학습 만화로 제작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땅의 상태에 따라 빗물이 스며든 정도가 달라지는군.
- ② ㉡ : 빗물이 흡수되지 않는 그릇을 만들어 비가 온 양을 재야겠군.
- ③ ㉢ :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측우기를 제작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 ④ ㉣ : 상단까지 물이 찬 것을 보니 백성들의 피해가 심하겠군.
- ⑤ ㉥ : 농사에 과거 강우량의 통계치를 활용하도록 하라.

42.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점]
- ①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풍향계
 - ②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진계
 - ③ 공기의 압력을 나타내는 기압계
 - ④ 차고 더운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계
 - ⑤ 공기 중의 수증기 양을 나타내는 습도계

[43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화 초(세조 11년 1465년)에 경주에 박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유학을 공부하여 태학관(太學館)에 적을 두고 있었으나 아직도 과거에 급제해 보지 못해서 항상 우울한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도 ㉠박생은 그의 포부와 기상이 고상하여 어떠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에서 그를 오만한 청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남과 교제할 적에는 성실하고 순박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찬해 마지않았다.

<중략 줄거리> 어느 날 박생은 꿈에 나타난 저승사자에게 인도되어 남염부주라는 별세계로 간다. 남염부주는 세계 타오르는 불이 항상 공중에 떠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지옥에 해당한다. 그곳에서 염부주의 왕과 박생은 사상적인 담론을 벌인다.

왕이 박생에게 삼한(三韓)이 흥하고 망한 자취를 물었더니, 박생이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다. 고려가 창업한 이야기에 이르자, 왕이 두세 번이나 탄식하며 서글퍼하더니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하여서는 안 되오. 처음에는 백성들이 잠시 따르더라도 나중에 가면 불평불만이 쌓여 끝내 난리가 일어나는 법이오. 또한 ㉡덕이 없는 사람이 권력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되오. 본디 나라는 백성들의 것이오. 명령이란 하늘의 명령이니, 천명이 버리고 민심이 떠나면, 자기 몸을 보존하고자 해도 불가능할 것이오.”

박생이 또 역대 제왕들이 이도(異道)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자, 왕이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임금의 덕을 칭송하는데도 큰 물과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임금에게 매사에 삼가라고 경고하는 것이오. 백성들이 임금의 정사에 대해 원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해서 교만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오. 제왕들에게 상서로운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백성들이 편안해질 수 있겠소? 원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소?”

박생이 말하였다.
“간신이 별떼처럼 일어나 큰 어지러움이 자주 생기는데도 임금은 백성들을 위협하고서 그것을 잘 한 일로 생각하고 명예를 요구하려 한다면 어찌 나라가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생의 말을 들은 왕이 한참 있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말씀이 지당하오.”

잔치가 끝나자 왕이 박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하여 손수 글을 지어 박생에게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염부주의 땅은 실로 풍토병이 생기는 곳이므로, 우(禹) 임금의 발자취도 이르지 못하였고, 목왕(穆王)의 준마도 오지 못하였다.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으며, 목이 마르면 뜨거운 구리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불에 쪼인 뜨거운 췌덩이를 먹어야 한다. 귀신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 없고, 도깨비가 아니면 그 기운을 펼 수가 없는 곳이다. 화성(火城)이 천 리나 뻗어 있고 철산(鐵山)이 만 겹이다. 백성들의 풍속이 사납고 악해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그들의 간사함을 판단할 수가 없고, 지세도 험악하여 위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들을 교화시킬 수가 없다. 박생은 사람됨이 정직하고,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재질이 남과 달라 모든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인물이다. ㉠인간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는 비록 입신하여 출세하지 못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길게 믿고 의지할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마땅히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법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여 지극히 착하게 만들라.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라. 내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일을 본받아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겠다. 그대는 삼가 받으시오.”

박생이 이 글을 받아들고 승낙한 뒤에, 두 번 절하고 물러나왔다. 왕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축하드리게 하고, 태자의 예절로써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박생에게 말하였다.

“머지않아 곧 돌아오셔야 하오. 이번에 가거든 수고스럽지만 나와 문답한 말을 전해서 ㉢인간 세상의 황당한 일들을 모조리 없애게 하십시오.”

박생이 또 두 번 절하여 감사드리고 말하였다.

“명령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생은 대왕과 하직하고 대궐을 나와 수레에 올랐다. 그때 말굽이 진흙 속에 빠지면서 수레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쓰러졌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깨어 보니 한 바탕 꿈이었다.

눈을 떠보니 책은 책상 위에 내던져져 있었고, 등잔불은 가물가물하여 박생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박생은 인간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였다.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나 박생이 갑자기 병이 들었다.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았으므로 의원과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려던 날 저녁에 이웃집 사람의 꿈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말하길,

“네 이웃집 박생은 곧 염라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 김시습,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 ④ 염왕은 남염부주의 백성들이 사는 환경을 개선했다.
⑤ 염왕은 박생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

[44 ~ 45] <보기>는 위 글에 대한 평론의 일부이다. 44번과 4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남염부주지」는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한문 단편 소설이다. 『금오신화』가 창작된 시기는 김시습이 금오산에 은거한 31세에서 36세 사이이다. 이 시기는 그에게 ‘참여적 은둔기’라 할 수 있다. 단종을 폐위하고 들어선 세조 정권을 용납하기 어려워 비록 세상을 등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주 버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용납하기 어려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양면의 기로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절의와 공명심, 그 사이에서 번민하던 김시습은 『금오신화』에서 꿈의 세계를 그린다. 그에게 꿈은 서사적 모티프의 원천이 되었고, 또 허구적 플롯의 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44. <보기>를 참조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세상을 등지고 절의를 지키고자 했던 작가의 강직한 모습이 박생이라는 인물에 담겨 있군.
② ㉡ :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의 부덕함을 빗대어 비판하고 있군.
③ ㉢ :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지 못했던 작가의 삶이 드러나 있군.
④ ㉣ : 작가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이상이 염왕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군.
⑤ ㉤ : 절의와 공명심 사이에서 번민하는 작가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군.

45. <보기>를 통해 볼 때, 꿈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종교에 귀의하게 됨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② 부조리한 현실 세계를 벗어난 도피처이다.
③ 삶의 허무를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위안처이다.
④ 현실 세계에서 느끼던 욕망과 갈등을 해소하는 출구이다.
⑤ 욕망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게 하는 장치이다.

43.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박생은 현실 세계에서 왕이 되었다.
② 박생은 염왕을 설득하여 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③ 염왕은 고려의 창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6. [A]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실진댄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
대중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할진댄 나라 보전할 것을 알리라.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을 지속하느니라.

- 충담사, 「안민가」 -

- ① [A]와 <보기> 모두 백성들을 선한 존재로 인식했다.
- ② [A]와 <보기> 모두 치국의 근본이 평등임을 강조했다.
- ③ [A]와 <보기> 모두 태평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④ [A]에서는 위정자의 노력을, <보기>에서는 위정자의 타고난 본성을 중시했다.
- ⑤ [A]에서는 위정자의 도덕적인 자세를, <보기>에서는 각자의 본분을 지키는 자세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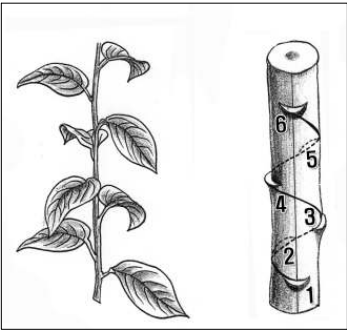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들이 건물을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높이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물을 수평으로 늘어놓으면 땅값의 부담이 커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식물들도 우리처럼 집을 고층화한다. 그 이유는 이웃 식물들에게 공간도 남겨 주고,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층이 거듭될수록 문제가 따르게 된다. 3층 사람이 소란을 피우면 2층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해결이 쉽지는 않다. 심하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식물들에게도 위와 아래의 갈등이 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 식물의 잎은 살 수 없다. 자기 잎 바로 위에 이웃 잎이 겹칠 때, 말하자면 ㉮(위층/윗층) 마루가 자기 집 천장이면 하늘을 쳐다볼 도리가 없게 된다. 하지만 식물들은 아주 훌륭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지면에서 가지 꼭대기까지 나선형의 계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계단은 기하학적인 규칙에 따라 같은 간격으로 올라간다. 나선 층계로 된 높은 탑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벚나무의 가지와, 잎이 붙었던 위치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최초로 싹이 튼 가장 아래에 있는 잎1에서 출발해 보자. 여기서 가지를 휘어 도는 가상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에 잎2가 있다. 이 잎2는 잎1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곳에다 자신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올라간 곳에 있는 3층의 잎3은 잎1과 잎2와 겹치지 않는다. 그렇게 반복하여 잎6에 이르면 비로소 잎1 바로 위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잎6은 5층 계단의 높이 때문에 잎1이 빛을 흡수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 제일 아래에 있는 잎과 겹치게 되는 잎이 나타날 때까지를 한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 사이클이 식물의 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벚나무의 사이클은 잎1에서 출발해 잎6에서 겹쳐졌기에 5가 된다. 다른 기준도 있다. 한 사이클을 이루기 위해서 몇 바퀴를 도는가를 따져보기도 한다. 벚나무는 잎1에서 잎6에 이를 때까지 두 바퀴를 돌고 있다. 이 사이클과 ㉮(돌음/뽕/뚝)의 수를 분수로 나타내는데, 이를 식물의 ‘개도(開度)’라 한다. 그러니까 벚나무의 개도는 2/5가 된다.



<벚나무 가지와 잎의 위치>

그러면 다른 식물들도 벚나무와 똑같은 개도를 가질까? 식물들은 덮어 놓고 남을 따라하지는 않는다. 느릅나무의 경우는 잎3에서 잎1과 겹친다. 두 계단만 올라가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다. 나선도 한 바퀴 도는 것이 전부이다. 결국 느릅나무의 개도는 1/2이다. 백송의 개도는 5/13인데, 다섯 바퀴를 돌아 14번째 잎에서야 첫 번째 잎과 같은 위치에 놓인다는 말이다. 이처럼 식물은 자신의 집을 건축할 때, ㉮ 전체적으로는 공통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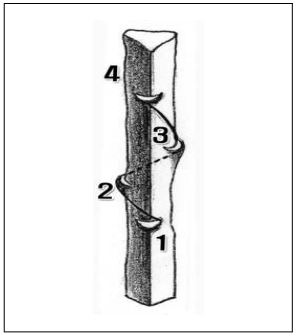
47. 위 글의 글쓰기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
- ②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
- ③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다.
- 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48.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빛을 향해 성장하는 것은 같으나, 사이클이 다르다.
- ② 잎이 나선형을 그리며 나는 것은 같으나, 방향이 다르다.
- ③ 이웃 식물과 경쟁하는 것은 같으나, 빛을 흡수하는 방법이 다르다.
- ④ 뿌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같으나, 최초의 잎이 있는 높이가 다르다.
- ⑤ 동일한 사이클에 따라 잎이 나는 것은 같으나, 다른 식물을 모방하는 방법이 다르다.

49. 다음 나무의 개도는?



- ① 1/2
- ② 1/3
- ③ 2/3
- ④ 1/4
- ⑤ 2/4

50. ㉠과 ㉡의 단어 중, 맞춤법에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위층 - 돌음 ② 위층 - 뚫 ③ 위층 - 돛
- ④ 뒤흘 - 뚫 ⑤ 뒤흘 - 돛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